데스크 시각

'싫은 소리'도 듣는 자치단체장

김미은
문화부장·편집부국장

전 세계 영화인의 축제 부산 국제영화제나 입지를 굳힌 부천·전주 국제영화제 개최 소식을 들을 때면 사돈이 땅을 산 것처럼 배가 아프다. 이들 영화제와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사라져 버린 광주국제영화제가 떠올라서다. 이후 광주 국제영화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지만 아쉽긴 해도 이미 탄탄히 자리를 잡은 영화제가 여럿인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강릉 국제영화제 개최 소식을 접했을 때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전 세계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행사라는 뉴스에 생뚱맞음은 부러움으로 바뀌었다.

시장 바뀌었다고 사라진 영화제

지난 7월 들려온 강릉 국제영화제 소식에 또 한 번 놀랐다. 새롭게 당선된 강릉시장이 개최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영화제를 없앴다는 것이었다.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다는 점 등을 폐지 이유로 들었고, 30억 예산 중 27억을 회수해 출산 장려 정책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단 세 차례 치른 행사, 그것도 코로나19 등으로 제대로 치러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영화제 폐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문화를 단순히 수익성이나 가시적 성과로만 따지는 저급한 인식을 본 듯해 씁쓸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외국 영화인 초청 등 한창 준비중이던 행사가 갑작스레 사라져 버리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코미디 같기도 했다.

강릉 소식을 들으며 문득 담양이 떠올랐다. 죽녹원, 담빛예술창고, 해동문화예술촌 등 핫 플레이스가 많은 담양은 생태와 문화라는 두 가지 테마로 이미지를 구축했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지난해부터 담양에 취재를 갈 때면 걱정의 목소리를 접했다. 새 단체장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점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더 자주 들렸다. 행여 전임 군수가 진행한 일이라는 이유로 신임 군수가 문화 비전이나 철학도 없이 무작정 기존 사업을 배척하거나, 기조를 흔들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였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한때 특정 공간이 사라지거나 역할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나 사업, 공간 조성 등이 자치단체장의 전유물이 아닐진대,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흔들려서는 안될 일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복합 쇼핑몰 등 굵직한 현안들을 둘러싸고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 쪽에서 보자면 출발이 썩 매끄럽지는 않은 듯하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탓이다. 문화경제 부시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그것이다.

'문화'와 '경제'를 아우르는 '문화경제 부시장' 선임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지역문화단체의 성명서처럼 그래도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경력과 능력'은 고려한 인사였다. 주로 경제에 방점이 찍혀 아쉽기는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번 인선은 경제와 문화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또 지역 문화계의 반발을 산 문화정책관광실의 역할 축소도 '예술 관광'을 주된 도시 브랜드로 삼아 수많은 사업을 진행해 온 지금까지 정책을 퇴보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지금 지역에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기관장 공모를 앞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오는 9월 중순 임기가 끝나는 광주시립미술관장을 둘러싸고 많은 말들이 오간다. 지난달부터 현역 작가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며 시장과 선을 대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며칠 전부터 기획자 출신의 A씨 내정설과 추천자 이름 등 구체적인 팩트가 떠돌았고, 문화계는 '그의 전력'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단 시는 A씨 내정설을 부인한 상태다. 어느 자리든 '내정설'은 능력 있는 적임자 발탁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들러리로 공모에 응할 능력자는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 산하 기관장 인선 제대로

새 수장의 첫 인사가 중요한 건 자치단체장의 비전이나 정책, 운영 스타일, 기질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앞으로 이어질 산하기관 단체장 공모에서 이번 부시장 인선 과정 중 보여 준 막무가내식 선정이 이어지면 곤란하다.

자치단체든 회사든 CEO가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합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싫은 소리, 반대 의견도 가감 없이 듣는 게 필요하다. 백날 '우리 편' 이야기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다.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자치단체장이라고 모든 걸 알 수는 없다. 귀를 활짝 열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여러 의견 가운데 옥석을 가려 정책에 반영하는 것, 적재적소에 사람을 기용하는 것 그게 바로 단체장의 능력이다.

모두 알겠지만, 우리편 이야기만 듣는 것만큼 무서운 건 '모두가 입을 다무는 것'이다.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아버지의 자리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각종 면접에서 지원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가 '자기소개서'다. 인사 담당자는 바쁘다.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를 찬찬히 검토할 여유가 없다. "저는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입사 원서에 이런 내용을 쓰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마법의 문장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6년간 입학 사정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면접관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용어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상투적인 표현이 나오면 표절부터 의심하게 된다. 취업 준비생의 최종 목표는 취업이다. 자소서의 추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원자를 기업체에서 어디에 쓰겠는가.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로 시작하는 자소서는 쓰레기통으로 직행이다. 물론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는 죄가 없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담은 '가시고기'란 소설이 2000년 초 화제가 되었다. 백혈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어린 아들을 보살피다 시한부 인생을 산 아버지의 부성애(父性愛)를 그린 눈물겨운 작품이다.

가시고기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강한 물고기다. 암컷이 산란 후 죽고 나면 수컷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알 옆에서 보름 동안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여 알에 맑은 산소를 공급한다. 다른 물고기들이 가시고기의 알을 먹기 위해 침입하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 그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사투를 벌이다 체력이 소모되면 가시고기 수컷은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소개된 가시고기의 육아 일기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고발하는 듯하여 감명을 주고 있다.

현대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 할 만큼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혼동과 갈등이 존재한다.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눈뜨기 전에 나가고 잠든 후에 들어오는 하숙생'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 보니 세상이 온통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는 세상인 듯하다. 그나마 매달 연금을 받는 아버지는 어느 정도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 시원치 않은 아버지는 나이 들수록 아내의 사랑을 받는 애완견을 부러워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집안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아버지의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설 수도 없다. 그만큼 무겁고 어려운 자리가 아버지다.

농경시대부터 아버지는 삶의 경험을 전수하는 자상한 안내자였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파종하고 타작을 하는 등 농사 요령을 배웠다. 농경시대에는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삶의 지혜였고 세상 질서였다. 그 시절에는 '아버지의 자리'라는 게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 온돌 문화에서 아랫목은 아버지만의 공간이었다. 그 자리는 아버지의 권위로 상징돼 그 누구도 아랫목에 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아버지들의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

먼저 배웠다는 것이 반드시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자유 시간 대부분을 인터넷과 함께 보내고 있다. 세상 누구와도 실시간 교류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아빠는 몰라도 돼"라는 자식들의 말투에 우울해하면서 골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의 균열은 곧 사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버지 등을 바라보면서 자란다'고 하지 않는가. 비행 청소년 대부분은 사실상 이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방황을 겪고 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찾아가도 변함없이 맞아주는 고향의 느티나무 같은 존재가 아버지의 자리다.

기 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

여수시는 전남 전체 섬(2165개) 중 10%가 넘는 365개 섬을 보유하고 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답게 365개의 섬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뽐내고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섬 섬여수'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여수 신항 일대에서는 세계박람회가 개최됐다. 104개국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해양과 연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며 가장 작은 도시에서 개최한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여수시의 사회간접자본(SOC)과 기반시설이 크게 늘며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했다. 여수시는 나아가 풍부한 섬 자원 활용 방안을 계속 고민해 오던 중 지난 2018년부터 섬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게 됐다.

정부도 여수시의 노력과 준비 상황, 개최 취지를 감안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국제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최종 승인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정부 인증 국제 규모 박람회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물론 여수시는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섬 발전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섬은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의 보고이며 해양관광의 거점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그로 인한 섬 소멸 위기, 섬 주민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섬 박람회는 전 세계 섬을 가진 나라들이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간 돌산 진모지구와 금오도 등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세계 30여 개국의 외국인 6만 명과 내국인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경제적 효과도 커 6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여수시는 박람회 세부 계획 수립 및 준비 단계부터 시민이 중심이 된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붐 조성을 위한 사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참여 가능 국가를 매년 순차적으로 초청해 체험 행사와 연차별 주제로 국제 포럼을 열어 의제를 박람회 프로그램과 연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섬의 매력과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섬이 대한민국과 전남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달라진 여수시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도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다. 특히 조직위원회 설립 계획 및 재단법인 출연 타당성 검토와 함께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 저력의 여수시가 365개의 아름다운 섬과 두 개의 해상국립공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등 풍부한 섬·해양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모든 의지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社說

속도 내는 전방 부지 개발 공공성 강화해야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요양병원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발업체는 다음 달 광주시에 세부 개발 계획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핵심 쟁점인 아파트 개발 규모와 공공성 확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될지 주목된다.

광주시 북구 임동에 위치한 전방·일신방직은 지난 2000년 7월 30만여㎡의 공장 부지를 부동산 개발 회사인 MBN프라퍼티·휴먼스홀딩스에 6850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양측은 당시 1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전남방직 내에서 영업 중인 요양병원 등 시설물의 명도 절차가 완료된 후 완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자 전남방직은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 지난해 4월 승소한 후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추석을 전후해 광주시에 세부 계획안을 제출하고 토지 잔금도 조만간 치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의 조건으로 공장 부지 내 해방 이전 시설물 원형 보존 및 역사문화 공원 조성, 신구 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대형 유통센터·특급 호텔 조성, 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 방안 등을 요구해 왔다. 개발업체는 세부 계획안에 이런 내용을 상당 부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쟁점은 아파트 개발 규모이다. 개발 업체는 4500세대 이상은 돼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 내부에선 상업·업무·문화 시설이 조화된 융복합 개발이 이뤄지려면 3000세대 정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 유산으로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구도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개발에 따른 혜택과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아파트 개발은 최소화하고 공공성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국 꼴찌 문화 인프라 확충 '삶의 질' 제고를

예부터 광주를 '예향'(藝鄕)이라 불렀다. 조그만 다방에 가더라도 그림 한 조각은 걸려 있고 소리 한 대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의미에서다. 지금도 광주를 대표하는 단어로 '예향'을 거론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예향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교육' 보고서를 보면 광주를 예향이라 부르기가 무색할 정도다. 문화와 보건·교육 전반에서 기반 시설이 전국 평균보다 열악해 주민들의 삶이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와 공연 횟수 등 문화 분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광주에 있는 국공립 도서관은 24곳으로 전국 시도 평균 69곳의 35% 수준이었고, 박물관도 12곳에 불과해 전국 평균(53곳)의 23%에 그쳤다. 또 미술관은 14개, 문화예술회관은 7개, 지방 문화원은 5개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연 횟수도 연간 247회에 머물러 울산에 이어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전남의 도서관 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도보로 평균 100분이 걸렸다. 공연 횟수는 최하위인 광주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의료 인프라도 주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다. 광주는 전체 인구 대비 0~6세 영유아 인구 비율이 5%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젊은 도시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의 절반 가량이고, 산부인과 의원 수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등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문화·의료 인프라는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꼴찌 수준인 문화 인프라 확충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 없이는 지역에 살라고 할 수 없다.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無等鼓

한중 수교 30년

1992년 8월 24일 중국 베이징 영빈관에서 한국의 이상옥 외무장관과 중국 첸치천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6개 항의 합의 내용에는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등이 포함됐다.

첸치천 외교부장은 2003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덩샤오핑은 한중 수교 반대파들을 설득하기 위해 한중 수교는 유익무해(有益無害)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만을 고립시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손해날 게 없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한중 수교로 한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됐다.

지난 30년 동안 양국은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교역액은 47배 넘게 증가했고 수교 당시 연간 13만 명에 불과했던 상호 방문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수교 당시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힘을 기름)였던 중국 외교 노선도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유소작위'(有所作爲·필요한 일에 적극 나섬)를 거쳐 시진핑 시대에는 '대국굴기'(大國崛起·대국이 일어서다)와 '중국몽'을 앞세울 정도로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2016년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조치 이후 양국 관계는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나마 한중 관계를 지탱해 온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대신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를 비롯해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리지만 분위기는 마냥 화기애애하지 않다. 2년 전 떠난 쑨시엔위 중국 총영사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4년간 광주에 머물면서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 기여해 명예 광주시민이 될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양국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상유이말(相濡以沫)의 정신으로 협력했다고 강조하곤 했다. '장자'에 나오는 말로 연못에 물이 바짝 말라 생존의 위기에 처하자 물고기들이 거품을 뿜어 서로의 몸을 적셔 주며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